

# ‘출발 좋다’ 광주 검도 올 시즌 전국대회 기대감 ‘쑥쑥’

2023년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

북구청 단체 준우승·지용빈 3위  
창단 1년 여성실업 탐솔라 준우승

광주 남녀 실업검도팀이 2023년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에서 전국 최강의 전력을 선보였다. 올 시즌 첫 대회에서 광주 남녀 실업팀이 선전함에 따라 전국 체전 등 굵직한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김태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 북구청 검도팀은 지난 7일 남원시춘향골체육관에서 폐막한 이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용인시청에 1-5로 패했다.

북구청에서는 조경철·조관현·이창훈·서민영·김범수·양상훈·양욱·지용빈·정영훈 등 9명이 단체전에 출전했다.

김태호 감독은 “비록 정상이 오르지 못했으나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면서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1차 목표로 하되, 올 시즌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 북구청(왼쪽)과 탐솔라 검도팀.



〈광주시검도회 제공〉

광주 유일의 실업여자 검도팀인 탐솔라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탐솔라는 경주시청과 무승부를 기록, 양 팀에서 대표선수가 각각 1명씩 출전해 겨루는 대표전에서 0-1로 졌다. 탐솔라는 예선전에서 포항시체육회를 2-0으로 따돌리고 4강전에 진출해 부산시체육회를 대표전

에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탐솔라 검도팀은 신재생에너지기업인 탐솔라(주)가 지난해 창단한 여자검도팀이다. 같은 해 ‘제26회 춘계 전국실업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개인전에서는 북구청 지용빈이 3위에 올랐다.

올해 팀에 새로 합류한 지용빈은 32강전에서 부산시체육회 최민규를, 16강전에서 인제군청 우태영, 8강전에서 청주시청 고수민을 꺾고 4강에 올랐다. 4강전에서는 인천시청 최용찬에 1-2로 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출발한다’ 이상혁·김국영 亞실내육상선수권 첫 우승 도전



이상혁

10~12일 카자흐스탄 대회서 이상혁, 시즌 첫 점프... 김국영 60m 출전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과 육상 단거리 스타 김국영(32·광주시청)이 한국 선수 사상 첫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이들이 출전하는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대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이들은 나란히 해외 전지 훈련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올 시즌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해 유럽에서 훈련을 이어간 이상혁은 이 대회에서 시즌 첫 점프를 하기로 했다.

이상혁과 함께 국외 전지훈련에 나섰던 한국 남자 100m 기록(10초07) 보유자 김국영도 이번 대회 60m 종목에 출전한다.

둘 외에 남자 60m 허들 김경태(안산시청), 남자 세단뛰기 유규민(익산시청), 김장우(장흥군청), 남자 7종경기 최동휘(국군체육부대), 여자 포환던지기 이수정(서귀포시청), 정유선(안산시청)도 카자흐스탄 실내선수권에 나선다.

아직 출전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카자흐스탄 육상연맹은 “31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육상은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 소수의 선수만 내보냈다.

한국의 유일한 메달리스트는 2012년 중국 항저우 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4m30을 뛰어 2위에 오른 최윤희다.

8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복수의 메달리스트가 나올 전망이다.

남자 높이뛰기 이상혁은 유력한 우승 후보다. ‘현역 최고 점퍼’이자 이상혁의 라이벌인 무타즈에 사바르심(32·카타르)은 2010년 이란 테헤란 대회부터 2018년 테헤란 대회까지 5회 연속 아시아실내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최고 기록 2m38도 바르심이 보유 중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혁은 11일 오후 2시 50분에 예선전을 벌인 뒤, 12일 오후 8시 30분에 시작하는 결선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김국영은 11일 오후 1시 25분 60m 예선, 오후 9시 40분 준결선, 오후 11시 50분에 결선 등 하루 세 차례 레이스를 벌인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김국영이 그동안 해외 전지훈련에서 몸을 만들어온 만큼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오는 5월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등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만큼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 캄보디아 스롱 피아비, LPBA 시즌 2승

〈여자 프로당구〉

‘캄보디아 특급’ 스롱 피아비(블루원리조트)가 시즌 두 번째이자 통산 4번째 여자 프로당구(LPBA)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스롱은 7일 경기도 빛바루방송센터에서 열린 크라운해태 PBA-LPBA 챔피언십 LPBA 결승전에서 김보미(NH농협카드)를 세트 점수 4-3(4-11, 11-7, 11-10, 11-0, 2-11, 4-11, 9-3)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시즌 개막전인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이후 6개 대회에서 주춤했던 스롱은 시즌

마지막 투어 대회에서 정상을 탈환했다.

개인 통산 4승째를 거둔 스롱은 앞으로 1승을 추가하면 김가영(하나카드)과 임정숙(크라운해태)이 보유한 LPBA 최다승인 5승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스롱은 우승 상금 2000만원과 랭킹포인트 2만 점을 더해 시즌 상금 랭킹 1위(4940만원), 누적 상금 랭킹 3위(1억2880만원)로 올라섰다.

반면 당구선수 김병호(하나카드)의 딸로 사상 첫 결승 무대까지 밟은 김보미는 명승부 끝에 패해 아쉬움을 삼켰다.

/연합뉴스



김국영

## “차근차근”

지난 시즌 6위 머무른 흥국생명 김연경 복귀에 1위와 승점 동점

“6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까진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해 10월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만난 김연경(사진)은 올 시즌 목표를 묻는 말에 이처럼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흥국생명은 직전 시즌 김연경의 이적,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 베테랑 센터 김세영의 은퇴 등으로 리그 6위에 머물렀다.

그로부터 4개월여 흐른 시점에서 김연경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내고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0(25-21 27-25 25-15)으로 꺾고 현대건설과 승점 60 동점을 맞췄다.

현대건설(21승 5패)이 흥국생명(20승 6패)보다 승수에서 앞서 1위를 일단 유지했으나 이 기세면 흥국생명의 뒤집기도 가능해 보인다.

구단 고위층의 선수 기용 개입 여파로 권순찬 전 감독이 경질되는 등 내용에 휩싸였던 한 달 전 상황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적이다.

리더십 부재 위기에서 김연경은 더 빛났다.

이번 김연경은 필요한 때마다 득점을 터뜨려 주며 양 팀 최다인 22점을 책임졌다.

김연경은 경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사실상 크게 하는 부분은 많이 없다”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어렵게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김 감독대행과 모든 스태프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하는 것 같다”며 “계속 고비가 오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THE FIRST SLAM DUNK  
2023.01.04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교섭, 몬스터 하우스2: 인비저블 피닉스
- 2관 교섭, 네가 멀어뜨린 푸른 하늘
- 3관 타이타닉, 아바타: 물의 길
- 4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6관 메간
- 9관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 상견니, 네가 멀어뜨린 푸른 하늘
- 7관 씨네가들 영웅,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
- 8관 씨네가들 다음 소희, 유령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예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